

남원 혁신교육특구 2년차 추진

시·교육청, '마을풀은 학교 만들기' 와 문·예·체 지역 특색 교육 연계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끼'를 펼치는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남원시와 남원교육지원청이 함께 혁신교육특구 2년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 혁신교육특구는 올해 시비와 교육청 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삶을 품고 피어나는 행복교류의 터전, 교육 남원'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천하기 ▲ '내인의 보석을 찾아서', 미래핵심역량 키우기 ▲ '학교미을 교육남원' 공동체 만들기 3가지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교육남원 공동체 만들기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남원고을 공동체로 '마을풀은 학교 만들기'와 남원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예·체 교육을 지역과 적극 연계하여 추진한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남원 혁신교육특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배양은 물론 지역사회 특색이 배어나는 교육 활동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연대 육성을 위하여 교육청과 공동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당초 추진하였던 혁신학교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교육특구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맞



자기주도학습교실

물려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손을 잡고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의 특색이 배어나는 혁신교육특구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남원시와 함께 협력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시는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교육 공동체로 함께 참여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행복 교육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해 혁신교육특구는 새로운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교육 명품도

시 조성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학산 남원교육장은 "혁신교육특구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남원시와 함께 협력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 혁신교육특구는 지난해 학교 환경 및 교육여건개선과 공교육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권역별 배움두레 구축을 통해 특히 남원시내 총 79개 학교 중 75개 학교가 참여하여 학생·교사·학부모간 진일보한 소통과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고창으로

군, 모양성제·생태환경·관광자원 홍보

고창군이 '2016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해 아름답고 청정한 지역 곳곳의 다양한 관광지를 홍보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해 열리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전북도와 함께 참여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다양한 역사·문화·예술·생태환경·자원을 소개하고 지역 대표 농특산물과 농가공상품을 전시하는 등 고창에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여행상품을 안내했다.

군은 특히 '2016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고창의 대표적인

축제 '모양성제'를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12일과 13일에는 '모양성 박람회'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맵시 나는 한복을 입고 모양성제의 대표적 행사인 성밟기를 체험해보기도 하고 모양성 입구를 사진으로 만든 대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내 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홍보마을 부스를 운영하고 내 나라 테마파크로 창조관광기업과, 올해의 관광도시, 한국관광100선, 관광부대, 문화가 있는 날, 문화관광축제, 시티투어 등의 다양한 여행 콘텐츠로 관람객과 만났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 안전대진단

임실군은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을 지난 10일 실시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 점검단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역 내 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2주간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통해 ▲안전 유무 ▲보험 가입 ▲정밀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어린이놀이시설 2곳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국립안전현장 관찰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진단기간 동안 취합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보수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체험관광 홍보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3개 기관 참여

임실군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6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차별화된 '임실N치즈'와 체험관광 우수성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내 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슬로건으로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교류 기회를 마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 박람회이다.

군은 지역 내 대표 3개 기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119

인전체험관이 참여해 임실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임실N치즈'를 비롯한 다양한 유제품 시식과 홍보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증대 활동에 적극 나섰다. /임실=진홍영 기자



'자활생산품 순회 장터' 임실군청서

도내 13개 자활기업 참여...식가공품 등 40여 종 선보여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항상된 생산품의 품질·홍보와 판매처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전북지역 자활생산품 순회 장터가 11일 임실군청 1층 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활협약은 지난 2월 CGMP생산시설 위·수탁운영계약 체결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이환주 시장의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친환경생산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많은 기업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또한, ▲전주 우리밀 과자, 건강식품, 생활용품 세트 ▲군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의산 귀금속류, 가죽 및 한지로 만든 주얼리 ▲김제, 진안, 부안, 임실·청국장 구운 소금, 두부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생산품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군수는 "자활기업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면 홍보와 판로 개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은 오는 14일부터 해리면을 시작으로 심원면·성내면·부안면·홍덕면 5개면 6500여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올 12월말까지 개별주택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구조 및 배치·현황 등을 사전 활용하고, 이 자료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데이터 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주택을 방문할 때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건축물 현장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7, 2488)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2억 2000여만원 투입 10여 개 프로그램 총 350여 회 5000여 명 대상 진행



순창 보건의료원 경로당 건강관리

순창군이 유아·청소년·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군민들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군은 올해 2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10여 개를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총 350여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유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활성화·행복감·교실·한의약·육아교실 등을 운영한다. 유아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금주·금연 교실이 주를 이루며 전문 운영진이 직접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진행한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된다. 우선 최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 지출이 높아짐에 따라 비만NES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MI 측정을 통해 현재 비만도 및 균육양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식단조절과 탄력밴드, 스포츠댄스 배우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에 노인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노인층 대상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보건의료원 전문팀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건강체조교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

활지도는 물론 정신건강을 위한 웃음치료, 원예, 비즈공예, 노래교실을 운영해 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자수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숙주 군수는 "다원화 되는 사회에서 계층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은 군민들의 건강지수는 물론 행복자수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만성질환 없는 순창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650-523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구인규 기자

노암산업단지 화장품공장 세운다

남원시, 주쁘띠코스메틱과 투자협약 체결

남원시와 (주)쁘띠코스메틱(대표 강순옥)은 지난 11일 남원시청에서 화장품산업에 관한 투자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쁘띠코스메틱은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화장품기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이전을 검토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원시의 화장품산업 육성정책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만남이 이루어져 시 관계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남원을 최종 투자지로 선택했다.

(주)쁘띠코스메틱은 노암산업단지 내

있어 '청정 지리산'을 테마로 한 남원의 친환경화장품산업 발전전략과도 맞아떨어져 투자를 결정했으며 (주)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시·읍면회전략, 내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센터의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상호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2월 CGMP생산시설 위·수탁운영계약 체결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이환주 시장의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많은 기업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남원=유영철 기자